

# 도내 위기학생 집중 지원

### 도교육청, '위기 긴급 지원단' 구성·운영... 내달부터 발생학교에 즉시 투입

전라북도교육청이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9일 도교육청은 위기 사안 발생학교에 대한 전문 상담 인력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위기 긴급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교생활에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서 교육감은 지난 7월 4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위기학생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해왔다.

또한, 학교폭력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위(Wee)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도교육청 차원의 위

기 긴급 지원단은 기존 도교육청 위기 지원팀과 지역교육지원청 위센터 전문인력,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그 동안 도교육청에서는 고위험군 긴급상담, 상담·치료비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위기예방 지원을 위해 위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위기사안발생학교에 대한 집중 투입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은 위기 대응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위기사안발생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위기사안 발생학교의 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는 지역사회 전문가와 위센터 전문인력 등이 함께하는 긴급위기지원단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위기 긴급 지원단을 구성하게 됐다.

위기 긴급 지원단은 위기사안발생

학교 애도교육·특별 상담·고위험군 심리검사 등을 지원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상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8월 중 위기 긴급 지원단 전문역량 강화 연수를 거쳐 9월부터 위기사안 발생학교에 즉시 투입,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의 긴급 위기 지원단은 상담 인력이 부족한 군단위 교육지원청과 위기사안 발생학교의 위기재발 방지와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로의 복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생들의 위기 극복 능력을 키우고, 예방·진단·치료까지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적극적인 위기대응과 관리를 위해 담임교사의 상담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9일 오후 정현을 익산시청과 함께 이리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업계고 경쟁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직업계고의 어려움 직접 듣고 해법 찾고

### 서거석 교육감, 이리공고 방문... "학습동기 향상, 취업처 확보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서거석 교육감이 직업계고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또다시 학교 현장을 찾았다.

서 교육감은 9일 오후 정현을 익산시청과 함께 이리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업계고 경쟁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 교육감의 직업계고 방문은 지난 달 21일 군산시청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장실습 사고와 고졸자 차별 등 부정적 인식으로 해마다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해법을 모색

하기 위한다.

더욱이 신입생 충원에 실패하면 학교 수를 줄이고 교사를 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 관계자를 격려하고, 발전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이다.

서 교육감은 "학생인구 감소와 취업률 하락 등으로 직업계고에 대한 인기가 예전 같지 않으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전북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지만 학생들의 취업 역량과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고 말했다.

특히 서 교육감은 "그동안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전북 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이고 직업능력을 키우며 취업처를 확보하는 일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 교육감은 시·군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 및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직업 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이들도 도민의 자녀"

### 서거석 교육감, 군산 생명샘아동센터 방문 애로 청취·협력방안 모색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초등학교생들의 여름방학 중 돌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8일 저녁 군산 생명샘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활동과 교육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무더위에도 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물가상승 등 운영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은 제자리 수준이기 때문이다.

생명샘지역아동센터 박영국 센터장은 "부족한 운영비와 물가상승 등이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8일 저녁 군산 생명샘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활동과 교육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맞물려 센터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위한 학습지도와 인성교육 나아가 체력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체험 등 프로그램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코로나19로 학교가 멈춰선 순간에도 지역아동센터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의 돌봄과 학습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학교와의 연계를 통

해 지역아동센터의 기초학력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강화되어 아이들이 위한 교육 안전망이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지원 사업 확대는 서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돌봄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북교육청·전북도청, 지역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100여일 남은 대입 수능... 전략은?

# 공부해 온 내용 복습 '중요'

2023학년도 수능시험(11월 17일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국어·수학 영역의 선택형 수능 체제가 유지되고,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과 정시 수능 전형 등이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대입 전형 변화와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100일 앞두고 집중해야 할 것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무리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공부 리듬을 잃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고3이라 한지라도 진로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 거론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성찰,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세계 등에 고민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이 부족한 전북 지역에서 다양한 학과에 대해 미리 경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www.adiga.kr)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유행 수능도 철저한 방역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위험군 시설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 위생에 신경쓰도록 자칫 건강상의 이유로 불리한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해야 함을 강조했다. 수능일에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9월 수능 모의평가 등의 시험에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쉬는 시간에만 3번 종이 가림막을 사용하면 정답이므로 수능 응시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올바른 학습 습관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며, 특히 선택형 수능을 고려한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13일부터 20일까지 전주,군산,익산 정읍,남원,김제에서 권역별 수시 지원 설명회가 시작되므로 다양한 설명회에 참여하면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김재훈 기자

### 수시, 최저학력기준 충족위해 특정 영역에 중점

### 정시, 전 영역 고르게 잘 볼 수 있도록 실력 쌓아야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공부해 온 내용을 복습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수험생들은 불안한 마음에 많은 문제집을 풀고 새로운 유형을 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신의 수준을 고려해 자신 있는 부분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공부를 강조했다. 수시 지원율이 높다 보니 많은 수험생들이 2학기 때까지 꾸준히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

의 '진로정보'와 '학과정보' 등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도교육청은 전형별로 수능 대비 방법이 다양할 수 있음이 특히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의 수능 준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특정 영역에 보다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며, 정시 수능 전형은 전 영역을 고르게 잘 볼 수 있도록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대입에는 변수가 많아 특정 전형만을 준비하는

## '행복가족 ON! 따뜻한 밥상' TF팀 운영

### 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가족 지원 위해... 첫 회의 열어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저소득층 학생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가족 ON! 따뜻한 밥상'을 위한 TF팀을 운영한다.

'행복가족 ON! 따뜻한 밥상'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의 생활과 명절에 따뜻한 밥상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전북교육청의 대표적인 학생복지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 토·공휴일 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복가족 ON! 따뜻한 밥상'은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뜻한 밥상 지원을 위한 TF팀은 9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을 위촉한데 이어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 절차 등을 협의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TF팀 위원은 초·중·고 교장 3명 및 교사, 교육복지담당인력 등 총 10

명으로 구성했다. 분과별 TF 1차 회의에서는 기초자료 분석과 의견수렴 방법, 타 시·도 사례 수집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30일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는 타 시·도의 지원사례와 조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 지원조례(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생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면서 "'행복가족 ON! 따뜻한 밥상'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로, 축하와 감사를 통해 가족과 소통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행복가족 ON! 따뜻한 밥상 지원', '편안한 생활교육으로 개선',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지원' 등을 통해 학생복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호남권 창업중심대학, 초기·도약 기업 솔루션 제공

### 전북대, 사업 오리엔테이션 등 오늘까지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권역 내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과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기본 프로그램을 9일부터 2일간 진행한다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예비창업자 40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25개, 3년 이상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 20개로, 총 62억원의 사업화자금을 투입해 권역 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회계 사항을 비롯해 창업 역량강화 교육, 온·오프라인 소비자 반응조사, 웹툰 비즈니스 스케일업 솔루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온·오프라인 소비자 반응조사는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과 아이템을 검증하고, 소

비자를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이다. 웹툰 비즈니스 스케일업 솔루션은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정책 극복 및 매출 증대를 위해 디자인 및 마케팅, 인종 분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정부지원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맞춤형 강의를 운영하고, 사업 담당자와 선정기업 상호 간 긍정적인 시너지 유발 및 사업의 성공 수행을 위한 네트워킹 시간도 가졌다.

창업지원단은 올해 예비 창업자에서 도약기 창업기업까지 전 주기적으로 창업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R 역량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및 이커머스 등을 활용한 국내·외 판로 개척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고창영어체험센터 하계 캠프 12일까지 중학교 1학년 대상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주)은 고창영어체험학습센터 주관 2022 하계 영어캠프를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원어민과의 자연스러운 언어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상황 중심 생활영어 구사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문화체험을 통한 국제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9명씩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2022년 하계영어캠프는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시범운영)이다. 기존의 영어캠프는 초3~중의 학생들에게 3일~5일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2022 영어캠프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집중운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교실 안의 영어가 아닌 실질적인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영어캠프 참가 학생들은 교실을 벗어나 고창내 운곡초지, 정읍 천사하이로즈 및 정읍 시립미술관에서 체험활동을 한 뒤 원 어민보조교사와 체험소감을 나눌 예정이다.

학생들의 영어능력 신장을 위해서 2007년 고창영어체험학습센터가 입소 교육과 시작하여 이래 학기중의 영어체험과 방학캠프를 운영하면서 고창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미래를 열어 갈 학생들의 영어능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